

17_3_한국어_唐崎

가라사키

현 지정 명승

시 지정 사적

가라사키는, 오쓰의 예부터 있는 지명입니다. 이 곳은 항구로 여겨지고, 또 헤이안 시대 [A.D.794-1185]에는, 천황이 재앙을 불제하는 장소의 하나로써 중시되었습니다.

11 세기 이후에는,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소개되어, 유명해졌습니다.

이 곳의 소나무는, 히요시 다이샤 서 본궁의 탄생 전승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,

「가라사키의 한 그루 소나무」로 불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졌습니다.

현재는 가라사키 신사 경내에 소중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.